

제191회 중앙종회(임시회) 인사말

유난히 무더웠고 다사다난했던 시간도 선선한 바람에 밀려가니 결실의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중앙종회의원 스님 여러분, 언제나처럼 중도의 의견을 소중히 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종단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단은 출범 50주년이라는 올해의 역사적 의미를 매우 무겁고 진중하게 받들면서 종단 쇄신과 개혁 불사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정진하겠다는 서원을 구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발표한 쇄신계획과 6월 22일 바로 이 자리에서 처리한 쇄신 입법에 따라 종단은 한걸음 한걸음씩 쇄신의 발을 갖고 불교중흥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단적 노력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사상과 스님들의 깊은 수행력으로 세상에 밝은 빛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한 때 국민들과 세계 만민들은 불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자비 실천의 길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종무원법 개정에 따라 중앙장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어긋난 종무행정을 바로잡는데 기여했으며,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과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 맞춰 보급하고 있는 개선된 가람지기 프로그램은 신도관리와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 사찰 종무행정에 혁신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원로의원스님들과 본사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스님 등 사부대중과 함께 종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발족한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는 명칭을 ‘종단 쇄신위원회’로 개칭하고 최근 4대 의제로 승가청규, 종단종무쇄신, 선거제도, 승가복지를 선정하였

습니다. 사부대중의 변화 열망과 불교 중흥에 대한 간곡한 서원을 잊지 않고 찰나의 시간도 쪼개어 대중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종회에는 ‘종단 쇄신위원회’에서 정리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각 교구본사의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에는 각 산중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대중의 의사를 집약해 의사결정을 해 온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과 민주적 방식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산중공의에 의해 본사주지스님이 추천될 수 있도록 이번 종회에서 관련 사항을 정비해 주신다면 이 역시 한국불교에 길이 빛날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함께 다루어질 선거 관련 각종 제도적 개선 안건들도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경륜과 지혜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11월 종회에서는 종무쇄신안과 승가복지제도, 선거관련 각종 개정안 등 종단 2차 쇄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악의적인 사찰 토지 불법매각 방지안 역시 진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부처님이 주신 불교적 사명과 시대적 요청을 묵묵히 안고 단계적으로 쇄신계획안 마련에 진력하겠습니다.

어느덧 제15대 중앙종회 상반기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과와 의미가 남달랐던 지난 의정활동을 함께 돌아보며 다시한번 그간의 진력에 감사하며, 늘 밝은 지혜와 깊은 원력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불기2556년 9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